

해안형국립공원에서의 휴양경험의 영향요소와 휴양만족에 관한 연구^{1a}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유기준²

A Study on Attributes to Recreation Experience and Satisfaction in the Korean Coastal National Parks^{1a} - A Case Study in Taean Coast National park-

Ki-Joon Yoo²

요 약

본 연구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들의 휴양경험에 관련된 속성들에 대한 탐방객들의 태도를 파악하여 향후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응답자 자기기입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42매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부실한 설문지 14매를 폐기하고 328매를 유효 표본으로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탐방객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기존의 국립공원 대상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다른 산악형 국립공원과는 다른 가족단위 휴식 목적이 강한 국립공원 특성을 보였다. 또한 탐방객의 휴양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과 시설, 공원관리, 불법행위 관련 속성 중 특히, 공원시설 부분(위생, 편의, 안내시설)에서 불만족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표출되었으며 전반적인 휴양 만족수준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주요어 : 설문조사, 불만족 요인, 만족수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visitor information through understanding visitors' attitudes to the attributes for recreational experience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major entry points in Taean Coast National Park. As for the result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visitors' parks were similar to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of national park visitors. The visitors' overall attitudes to significance levels of the 20 attributes which are related to the recreation experience were perceived as from normal to not serious, but a few dissatisfaction factors were indicated in park facility use. The satisfaction level was evaluated in the affirmative.

KEY WORDS : QUESTIONNAIRE SURVEY, DISSATISFACTION FACTORS, SATISFACTION LEVEL

1 접수 12월 31일 Received on Dec. 31, 2005

2 상지대학교 경상대학 관광학부 Division of Tourism, Sangji Univ., Wonju 220-702, Korea(kijoon@sangji.ac.kr)

a 본 논문은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서론

경제성장과 여가시간의 증가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야외휴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휴양 수요와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자원으로서 국립공원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다(유기준과 김정민, 2003).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휴양제공체계는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이다. 그러나 국토의 한계와 함께 자연휴양자원의 한계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휴양수요에 맞추어 양적인 증가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다 합리적인 휴양관리를 위해서는 휴양자원의 적절한 보존과 이용객들의 휴양 경험에 대한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유기준, 2001).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공원이 공공을 위한 야외휴양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립공원은 이러한 공공의 적극적인 이용과 더불어 공원 내 자원 보전이라는 상반되는 이념을 포함하고 있어 자연자원으로서의 보전적 가치와 관광휴양적 가치의 마찰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유기준과 김용근, 2000).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관리는 자연자원이나 이용시설 등의 자원요소에 대한 관리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립공원 내 자원이나 시설에 대한 영향은 근본적으로 탐방객의 휴양활동에 따른 상대적 문제로서 탐방객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없는 국립공원 관리 목표인 보전과 이용의 효율적 조화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균형 추구를 위한 최적의 관리방안은 자원관리와 탐방객 관리의 적절한 조화로부터 추구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의 탐방객 관련 연구 동향은 주로 산악형 국립공원을 위주로 전개되어 왔으나 해안해양형 국립공원에 대한 탐방객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계획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지인 태안해안국립공원은 1978년 10월 건설부 고시에 의해 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90년 3월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03). 태안해안국립공원은 2개군 7개면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328.99km²의 공간적 규모를 지니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03).

본 연구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태안해안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탐방행태, 휴양경험에 관련된 속성들에 대한 탐방객들의 태도를 파악하여 향후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주 진입거점인 학암포, 만리포, 연포, 백사장, 방포지역에서 태안해안국립공원을 방문하고 귀가하는 탐방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05년 4월 현지 Pre-test를 통해 설문지의 내용과 지구 수정작업 과정을 거쳤다. 설문조사 자료는 2005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응답자들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지역별 방문현황 등을 고려하여 총 342매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부실한 설문지 14매를 폐기하고 328매(학암포 : 70, 만리포 : 50, 연포 : 74, 백사장 : 66, 방포 : 68)를 유효 표본으로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이용객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환경 및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이용행태, 공원 내에서의 휴양경험 관련 속성에 대한 경험 수준, 종합적인 만족도 수준을 묻는 크게 5 범주의 질문군으로 구성되었다. 현장에서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 순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Table 1).

현지 설문조사에 참여한 328명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61.3%, 여성이 38.7%로 남성 응답자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조사결과(국립공원관리공단, 2000)와 유사한 경향으로서 태안해안국립공원 역시 타 국립공원의 경우와 같이 목적지 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중이 아직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연령 측면에 있어 20대가 28.7%, 30대 39.6%, 40대 26.2%로 나타나 30대에서 40대의 방문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타 국립공원(국립공원관리공단, 2004)에 비해 젊은 계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의 응답비율이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 여부에 대한 응답 중 기혼자 비율이 69.2%로 이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 한다.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대학 재학 및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가 전체 69.5%를 보여 고학력 지향의 우리 사회의 교육 특성을 나타냈다.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회사원 집단(27.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부(18.0%), 자영업(15.5%), 사업가(11%) 등의 순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Item	Category and frequency(%)
Gender	Male(61.3), Female(38.7)
Age	18~20(1.8), 21~30(28.7), 31~40(36.6), 41~50(6.2), 51~(5.5)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3.3), High school(26.8), University Student(14.6), Graduate University(47.3), More than University(7.6), N/A(0.3)
Occupation	Agriculture-Forestry-Fishery industries(2.4), Independent business(15.5), Office worker(27.3), Professional jobs(8.5), technical jobs(3.4), Public service personnel(4.6), Students(12.8), Housewives(18.0), None job(2.7), etc.(4.3), N/A(0.3)
Income(KRW)	Less than 990,000(6.1), 1,000,000~1,490,000(7.3), 1,500,000~1,990,000(11.6), 2,000,000~2,490,000(11.3), 2,500,000~2,990,000(18.6), 3,000,000~3,490,000(17.1), 3,500,000~3,990,000(5.2), 4,000,000~4,990,000(10.4), More than 5,000,000(10.7), N/A(1.8)

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월평균 가계소득에 대해서는 무응답 비율 1.8%를 제외하고 전체 응답자의 52.2%가 200~400만원의 소득수준을 나타냈으며 25.0%가 200만원 미만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고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범위인 400만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보인 응답비율도 약 21.0%로 나타났다.

2. 환경 및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

1)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21C 우리 사회의 중요 쟁점인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수준을 7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1%(7점 척도상 평균값은 5.09)가 「비교적 관심이 있다 ~ 매우 관심이 많다」로 응답해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반해 일상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실제 행동을 보이는 수준은 약 52.9%(7점 척도상 평균값은 4.69)로 나타나 관심도에 비해 실천행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나 이는 과거 연구결과(유기준과 김용근, 1999; 2000; 유기준 등, 2001)에 비해 점차 차이가 줄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Table 2). 그러나 성별, 학력, 직업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 행동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Mean comparison between concern and practice for environment issues

Item	Mean	SD
Concern for environment issues	5.09*	1.07
Practices in real life	4.69**	1.09

* 1: No concern ~ 7: Very strong concern

** 1: Very inactive ~ 7: Very active

2) 국립공원관리에 관한 인식

국립공원의 보전과 이용이라는 상반된 가치는 지속적으로 논쟁되어 왔다. 이러한 국립공원 관리방향에 대한 인식은 과거관리자 입장에서의 보전 위주의 인식과 보전과 이용의 균형 추구라는 탐방객 인식으로 대별되었다(유기준과 김정민, 200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탐방객들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점차 보전지향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탐방객 의견을 이용과 보전의 항목에 대한 중요정도를 100점 만점의 합으로 응답을 요구한 결과, 이용과 보전의 중요정도는 각각 43점과 57점으로 나타나 보전지향의 관리 지향의 견해가 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인 이용행태

1) 방문경험

전체 응답자의 96.6%가 우리나라 다른 국립공원을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설악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속리산국립공원, 경주 등의 방문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 대상지인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재방문 비율은 51.5%로 최초 방문자 비율과 재방문 비율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Figure 1).

재방문자 대상의 방문회수에 있어서 2~3회 방문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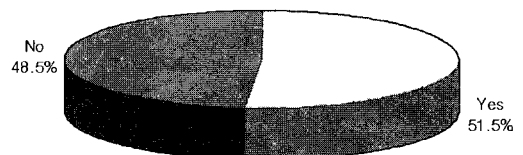


Figure 1. Visiting experience

율이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회 이상의 방문 경험을 가진 응답자 비율도 약 9.4%로 조사되었다 (Figure 2). 재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방문계절을 살펴본 결과 해안지역 소재 국립공원의 특성상 주로 여름철 방문경험자(73.8%)였으며 21.4%의 재방문 응답자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수시로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원의 입지적 특성에 따른 여름철 탐방객 집중현상에 대한 탐방객 영향관리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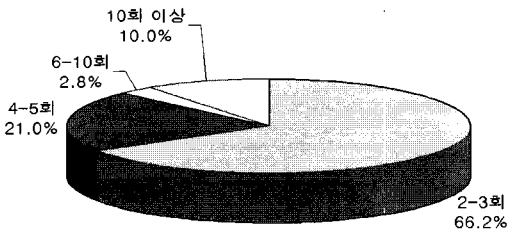


Figure 2. Number of visiting

2) 방문목적

태안해안국립공원을 방문한 주요 목적은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과의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휴식(19.0%), 친목도모(13.7%), 일상탈출(12.1%) 순으로 나타났으며 방문목적별 중요도(5점 척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 「휴식」, 「가족」, 「더위해소」 등의 항목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태안해안국립공원은 가족 단위의 휴식체재형 국립공원으로서의 이용특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겠다(Table 3과 4).

Table 3. Purpose of visit

Item	Frequency	%
Avoidance from usual ordinary	38	12.1
Resting	60	19.0
Health promotion	1	0.3
Mountain climbing	3	1.0
Escape form heat	29	9.2
Leisure time with family	114	36.2
Leisure time with colleague	43	13.7
For accomplishment	1	0.3
For self-esteem	2	0.6
Learn community culture	1	0.3
Sightseeing	6	1.8
Learn nature for children	17	5.4
N/A	13	-

Table 4. Importance level of purpose

Item	Mean	SD
Avoidance from usual ordinary	3.69	0.90
Resting	4.02	0.84
Health promotion	2.75	0.97
Mountain climbing	2.06	0.95
Escape form heat	3.82	0.95
Leisure time with family	3.89	1.33
Leisure time with colleague	3.40	1.48
For accomplishment	2.54	0.98
For self-esteem	2.60	1.02
Learn community culture	2.28	0.92
Sightseeing	3.18	1.01
Learn nature(plant, animals)	2.56	1.01
Learn nature for children	2.81	1.25

1: Not at all ~ 5: strongly agree

3) 동반자 특성

응답자들의 동반유형을 살펴보면, 가족친척(65.5%)과 친구(27.1%)동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를 동반한 응답비율이 57.3%로 나타났다(Figure 3). 특히 어린이를 동반의 경우, 1 ~ 2명 동반의 규모가 35.3%였다. 전체 동반규모에 있어서는 1인 ~ 4인 규모가 55.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에 비교적 대규모라고 할 수 있는 21인 이상의 단체 탐방형태는 0.9%에 그쳤다 (Figur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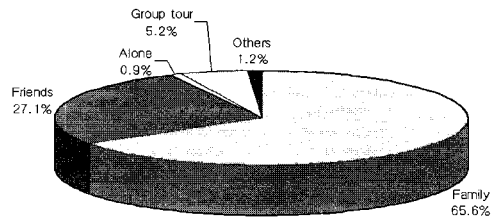


Figure 3. Types of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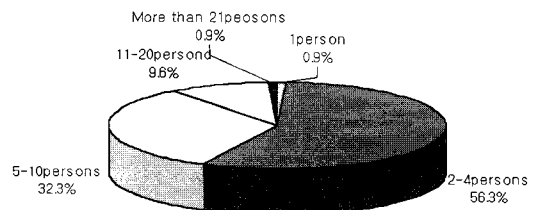


Figure 4. Numbers in the group

4) 여행목적지 유형 및 이용 교통수단

태안해안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들은 태안해안국립공원이 그들의 주목지로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91.4%)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주목지로 방문한 반면 경유지로서의 방문 비율은 8.5%로 나타나 산악형 국립공원에서의 주 목적지와 경유지의 비율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Figure 5).

응답자들의 주 교통수단은 자가용 의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96.3%) 그 외 대중교통수단이나 관광버스를 이용한 응답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태안해안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동반자 유형이 가족이나 친구 위주의 비교적 소규모의 탐방형태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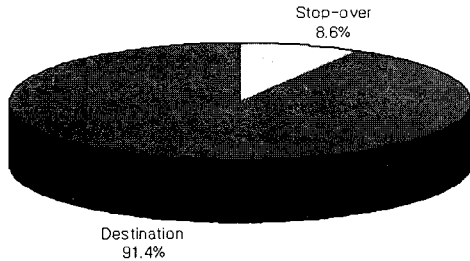


Figure 5. Visiting types

5) 이용정보 매체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탐방객 관리는 올바른 이용정보 제공을 통한 올바른 이용 유도가 근간이 된다. 과거 연구결과(유기준과 김용근, 1999; 2000)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립공원 도착전-후 이용정보 제공 효율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우 탐방객들이 방문전 취득한 관련 정보는 기타 인터넷(35.0%)과 주위사람의 구전(25.0%)에 대다수 의존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장 유용한 매체로서 역시 기타 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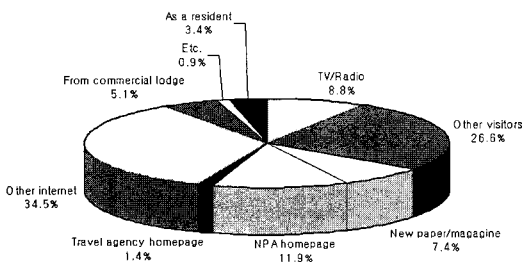


Figure 6. Information sources

(34.4%)과 주위사람(26.5%)을 꼽았다(Figure 6). 이러한 결과를 과거 조사결과(국립공원관리공단, 2000)와 비교해 볼 때, 인터넷 의존 비중이 매우 높아진 반면 주위사람에 의존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그동안 안내매체의 점진적 개선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나 공원사무소 문의에 의한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취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휴양경험에의 영향 속성에 대한 탐방객 태도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휴양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된 20개 속성들을 추출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감응성 정도를 5점척도(전혀 심각하지 않다 ~ 매우 심각하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Table 5).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시설 관련 속성들인 위생·편의·안내시설의 부족과 청결 항목들과 관리 관련 속성들이 쓰레기 및 바가지요금 등에 있어 보통 수준에서 심각한 수준인 5점 척도상 3 ~ 4점에서 평가를 받았으며 기타 항목에서는 비교적 심각하지 않는 수준에서 평가되었다.

Table 5. Responsive level for impact attributes to recreation experience

Item	Mean*	SD
Careless cooking	2.94	0.75
Littering problem	3.52	0.94
Exorbitant pay	3.23	0.85
Parking problem	2.93	1.14
Illegal camping	2.75	0.78
Noise	2.79	0.85
Illegal merchant	2.79	0.83
Visitor crowding	2.84	0.96
Touting	2.88	0.98
Lack of convenience facility	3.41	0.89
Clearness of convenience facility	3.44	0.83
Lack of sanitation facility	3.61	0.87
Clearness of sanitation facility	3.52	0.88
Lack of information facility	3.59	0.89
Safety for recreation activity	3.01	0.77
Safety for transportation use	2.66	0.70
Negative impacts on natural resources	2.90	0.67
Negative impacts on cultural resources	2.80	0.64
Negative impacts on the trails	2.77	0.67
Fee	2.81	1.01

* 1: Not at all ~ 5: Very serious

1) 자원 및 시설 관련 속성

태안해안국립공원 자원 및 시설 항목에 대한 탐방객 인식은 제시된 8개 관련 항목중 시설 부분인 편의·위생·안내시설의 부족 및 청결 상태에 대해서 「보통이다」(척도상 3점)에서 「심각하다」(척도상 4점)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7). 그러나 자원 관련 항목에서는 보통 수준에서 심각하지 않은 수준인 2점 ~ 3점 수준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다.

2) 공원 관리 관련 속성

공원 관리와 관련된 6개 항목에 대한 심각성 정도의 측정된 결과, 쓰레기 문제, 주위에서의 바가지 상혼 문제, 휴양활동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보통(3점)에서 비교적 심각한 수준(4점)으로 평가되었으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부담, 주차문제, 혼잡문제 등 과거 조사결과(국립공원관리공단, 2000)에서 제기되었던 항목은 덜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동안의 개선을 위한 관리적 노력의 성과로 판단된다(Figure 8). 그러나 과거에 비해 바가지 상혼과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한 인식 정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심각성이 인지되고 있어 관리의 역점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3) 불법행위 관련 속성

태안해안국립공원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탐방객의 심각성 인식 측정 결과 5가지 항목 모두 대체로 「보통」(척도상 3점)에서 「심각하지 않다」(척도상 2점)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2004년 내장산국립공원 탐방행태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Figure 9).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에 있어 공원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의 관리적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휴양만족 수준

태안해안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의 휴양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전체 응답자중 52.4%가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그들의 휴양경험에 대해 대체적인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불만족 수준의 응답 비율은 8.2%(7점 리커드 척도상 3점 이하)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전체적인 만족도 수준은 7점 척도상 4.71로 나타나 보통수준에서 대체로 만족하는 범위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조사결과(5점 척도상 3.32점)와 비교해 볼 때 미미하지만 약간 상승한 결과이다(7점 척도상 2000년 4.65와 2005년 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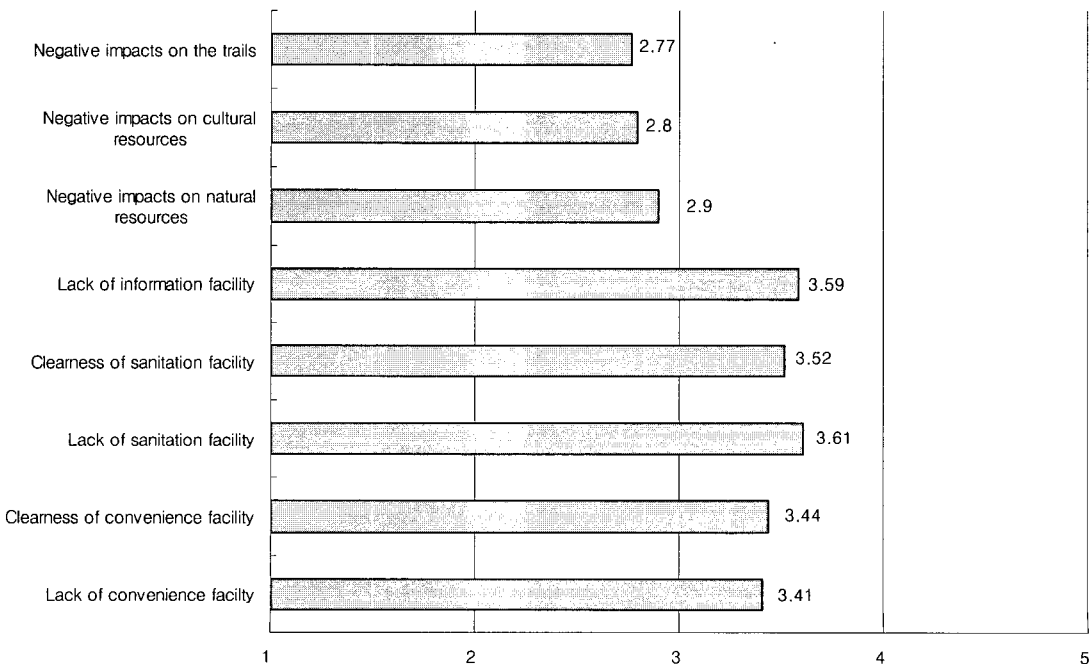


Figure 7. Attributes of resource and fac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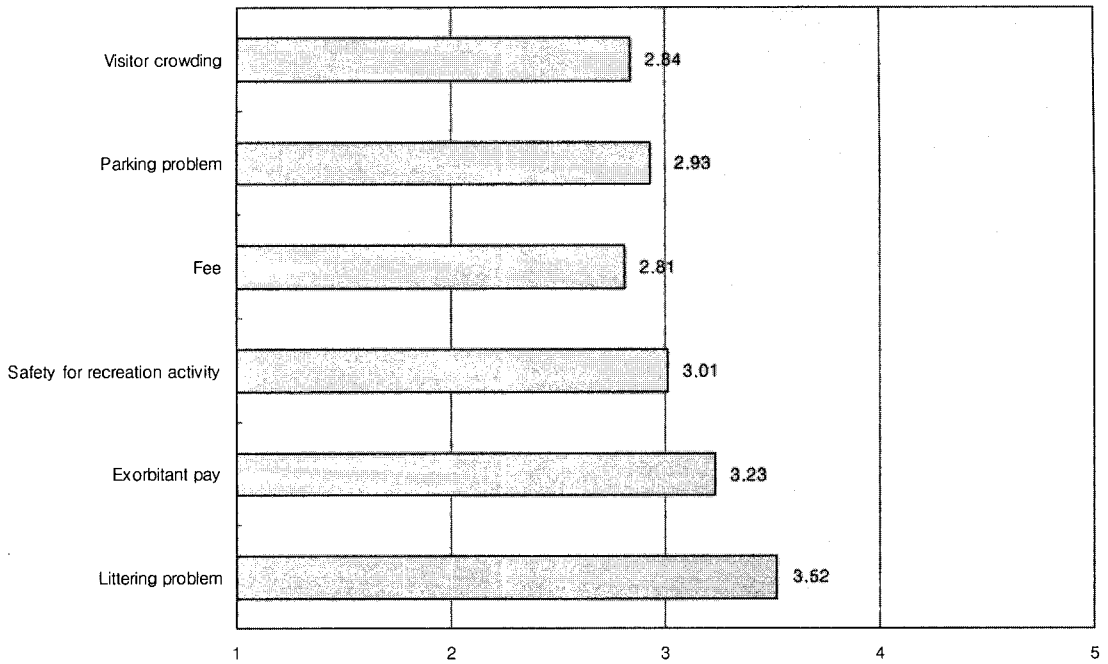


Figure 8. Managerial attribu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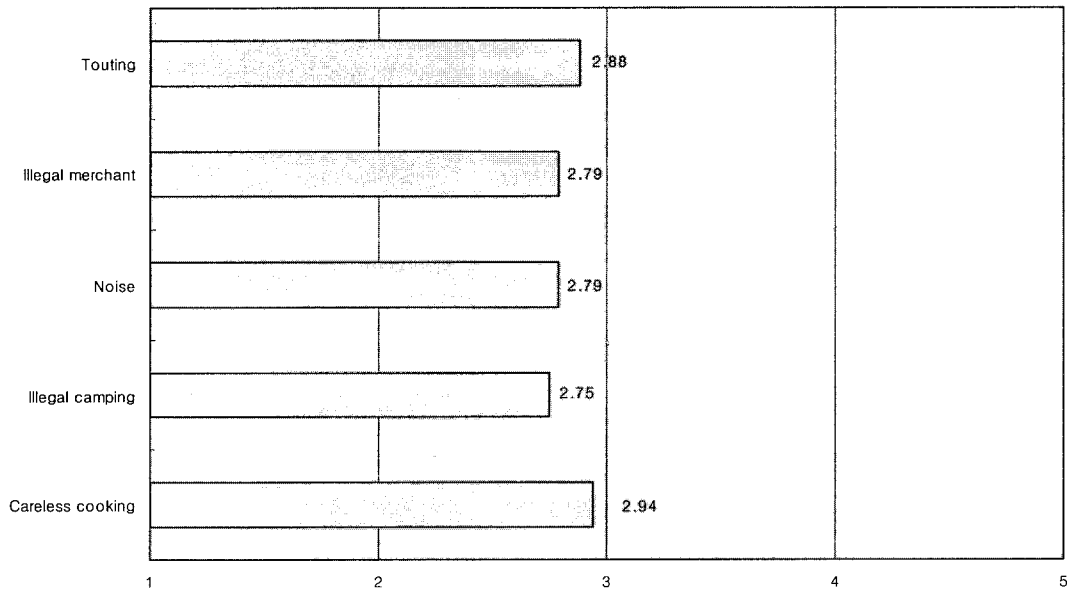


Figure 9. Illegal attributes

Table 6. Differences of recreation satisfaction level in educational background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Satisfaction level					
Between Groups	21.326	5	4.265	3.237	.007*
Within Groups	422.900	321	1.317		
Total	444.226	326			

* p<.005

Table 7. Differences of revisiting concern in educational background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Revisiting concern					
Between Groups	20.646	5	4.129	2.351	.041*
Within Groups	563.709	321	1.756		
Total	584.355	326			

* p<.05

만족도 수준과 더불어 재방문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7.6%가 재방문 의사를 나타냈으며 재방문 의사수준은 7점 척도상 4.83 수준으로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만족도 수준과 재방문 의사에 대한 성별 유의성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수준별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6과 7).

결론

태안해안 국립공원은 탐방객 활동의 대부분이 탐승지 방문보다는 해수욕 등의 여가 활동이며, 여름철 단일 계절 이용 집중지역의 성격을 지닌 국립공원으로 탐방객 집중현상에 대한 관리적 대안이 요구되는 국립공원 중의 한 곳이다.

국립공원 도착 전 이용정보제공 체계의 효용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목적지 도착 전 취득한 정보원천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의 탐방객들은 국립공원 관리주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기타 인터넷 통로 및 단순한 주위사람의 구전에 의한 정보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올바른 이용 유도 및 이용 경험의 질적 증대를 위한 전문적인 정보제공 체계 운영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사회의 중요한 쟁점인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일상에

서의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행동도 점차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의 관리에 대한 인식도 보전지향적으로 점차 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국민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향후 국립공원도 보전 강조 관리기조로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휴양경험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국립공원을 둘러싼 물리적, 사회적, 관리적 환경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환경요소로부터 추출한 이용 및 관리 관련 속성들의 심각성에 대한 탐방객 태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태안해안 국립공원에 있어 제시된 관련속성 중 특히 시설 부분에 있어 불만족 요인들이 표출되었다. 공원 내 편의, 위생, 안내 시설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시설관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수기 공원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계도를 통해 탐방객 휴양경험의 질 제고를 위한 관리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용문헌

- 국립공원관리공단. 2000. 국립공원별 특성에 따른 공원관리 방안 연구. 342-352쪽
- 국립공원관리공단(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2004. 내장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 20-30쪽
- 국립공원관리공단(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2003. 태안해안국립공원관리계획. 42쪽

- 김용근, 유기준(1999) 한려해상국립공원 이용객행태 조사. 환경생태학회지 12(4): 389-397
- 유기준, 김용근(2000) 지리산국립공원 이용객 행태 및 이용·관리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분석. 환경생태학회지 13(4): 367-374
- 유기준, 김동필, 김용근(2001) 계룡산국립공원에서의 이용객 행태와 관리속성에 대한 이용객태도. 환경생태학회지 14(4): 324-331
- 유기준(2001)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자원관리. 김성일과 박석희(편): 지속 가능한 관광. 일신사, 265-296쪽
- 유기준, 김정민(2003) 강원권 소재 국립공원 이용 및 관리속성에 대한 이용객 태도. 산림휴양학회지 6(2): 49-59